

치아의 상태별 발치법 ① - 잔근치(단근치, 복근치)

발치검자, 발치기자에 의한 발치의 기본을 배웠으므로 치아의 상태를 ① 잔근치(단근치, 복근치), ② 상악 매복 제3대구치(부분매복, 완전매복), ③ 하악 매복 제3대구치(부분매복, 완전매복), ④ 상악 정중 과잉매복 치, 소구치의 부분매복, 설측 전위치 등으로 나누어 각 과정에 따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 잔근치 발치 시의 포인트

CHAPTER 8의 발치기자를 이용한 발치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많으므로, 포인트만 기재하도록 하겠다. 치질이 약한 치은연하의 잔근은 의외로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잔근치 발치의 포인트는 발치기자를 이용한 발치의 기본과 마찬가지로 groove 형성에 의하여 발치기자의 작용점을 확보하는 것이다. 치근을 노출시키기 위하여 치은판을 거상시키거나 피복치은을 절제하는 등 보조적 치료를 하게 되면 원만하게 발치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 방사선사진을 관독하는 포인트

치근의 굵기, 길이, 형태, 치근의 만곡 유무와 그 방향, 치근막강의 상태(협소화, 상실), 치근단병소의 유무(발치와의 소파나 치근단병소 적출의 필요성 검토)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 잔근치 발치 시의 문제점

1) 치은이 치근면을 덮고 있다.

- ▶ 치근막강을 알기 어렵다.

2) 잔존치질이 부드럽다.

- ▶ 치질의 파절을 일으키기 쉽다. 발치기자 이용이 쉽지 않다.

3) 치근막강이 협소화되어 있다, 치근이 뼈에 유착되어 있다.

- ▶ 발치기자가 치근막강에 들어가지 않는다.

■ 잔근치 발치 시 문제점에 대한 해결법과 발치의 포인트

Point 1

잔근치 발치의 기본

잡을 수 있는 양, 형태, 경도의 치질이 남아 있는 경우는 발치겸자로 발치한다.

Point 2

피복치은을 절제하고 치근막강을 보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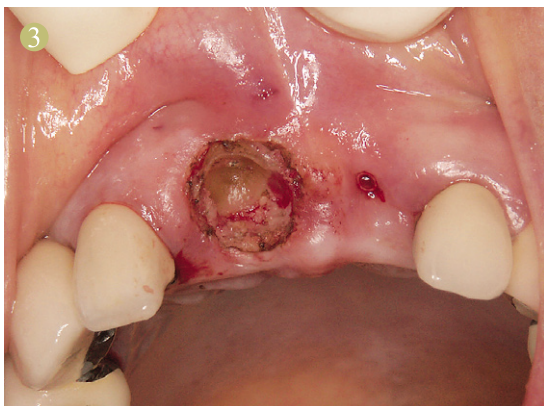
치은이 덮여 있는 경우는 귀찮더라도 메스, 전기메스, 레이저 등으로 피복치은을 절제하고 치근과 치조 골의 경계를 정확하게 나타내게 한다. 치근막강을 확인하고 발치기자를 확실하게 치근막강에 삽입한다 ①~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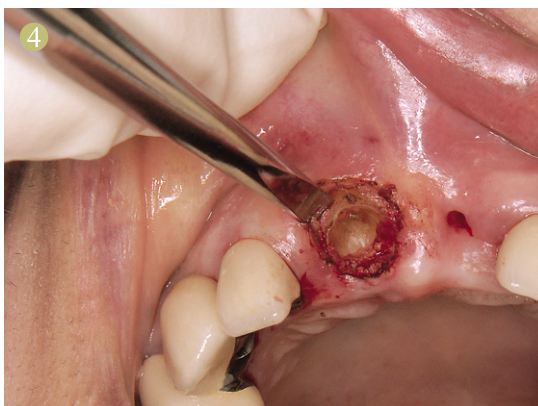
① 치은연하의 잔근치에서 치질을 잘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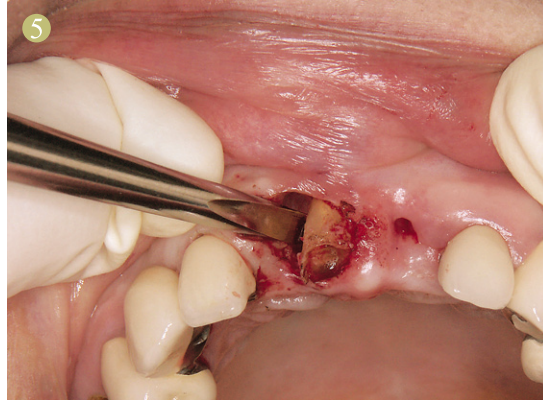
② 전기메스로 치은을 절제한다.



③ 피복치은을 깨끗하게 절제하고 치근막강을 명확하게 보이게 한다.



④ 치근막강에 확실하게 발치기자를 삽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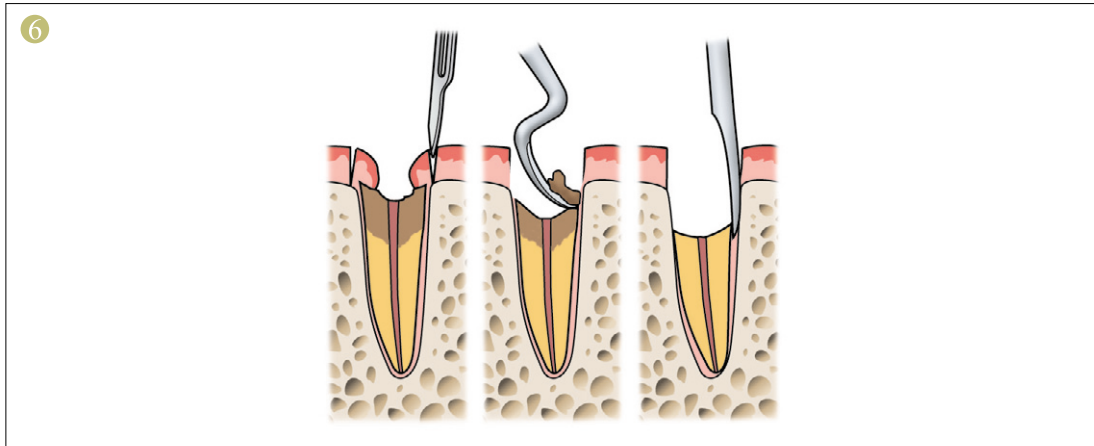


⑤ 쉽게 발치할 수 있었으며, 치은 및 치조골의 손상도 적다.

Point 3

연화치질은 제거하고 단단한 치질만 남긴다.

잔존치질이 부드러운 경우는 라운드 버나 엑스카베이터로 연화치질을 제거하고 단단한 치질만 남긴다 ⑥.



⑥ 피복치은을 절제, 연화치질을 제거하여 확실하게 치근막강을 노출시킨다. 치료로서는 어렵지 않으니 귀찮게 여기지 말자.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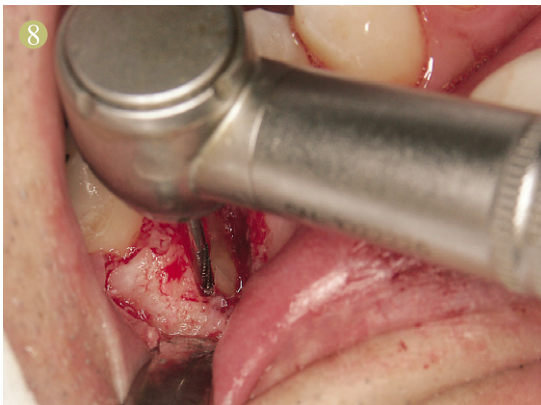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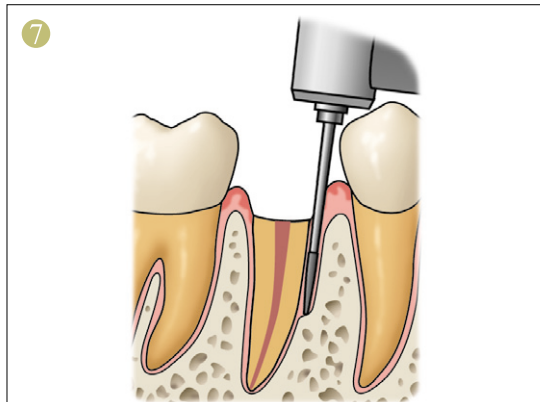
Point 4

치근막강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groove를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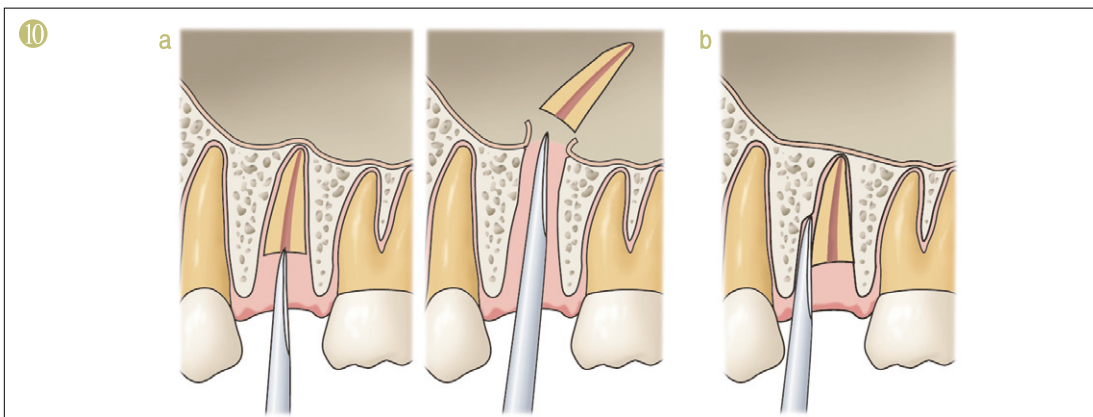
치근막강이 협소화되었거나 치근과 뼈가 유착되어 치근막강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버를 이용하여 치근과 치조골 사이에 치근막강 대신에 groove를 형성하고 발치기자를 이용한다 ⑦~⑨. 특히, 상악에서는 치근이 상악동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 처치가 중요하다 ⑩.

⑦ 발치기자의 삽입 공간을 형성.

- 발치기자를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 groove를 치근과 치조골의 경계에 형성한다.
- 충분한 깊이가 필요하다.
- Groove의 폭이 너무 넓으면 효과가 떨어지므로 주의한다.



⑧ ⑨ 치근막강이 확실하지 않을 때나 좁아서 발치기자를 삽입할 수 없을 때에는 고민하지 말고 치근막강에 해당되는 groove를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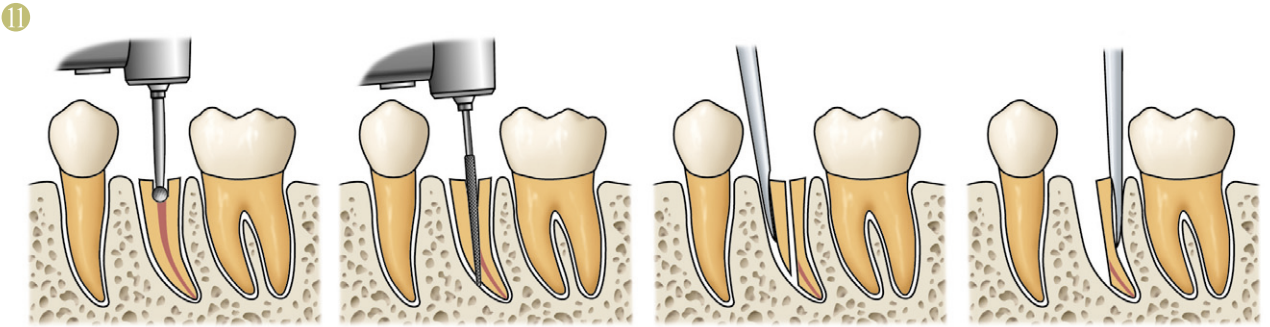


⑩ a. 상악동으로의 치근이입은 발치기자로 치근을 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b. 발치기자를 작용시키는 groove를 치근과 치조골 사이에 형성하면 방지할 수 있다.

Point 5

치근의 유착이나 만곡이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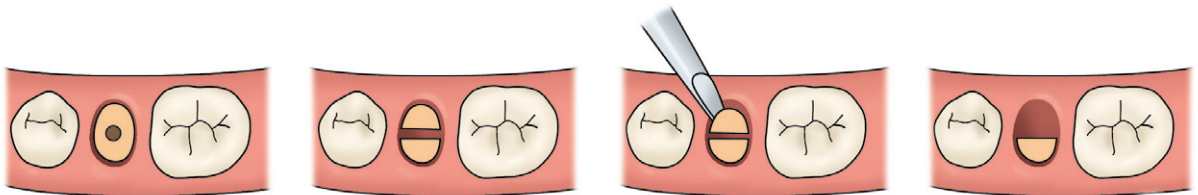
단근치라 하더라도 치근의 유착이나 만곡이 있어 빠지지 않을 때에는 버를 이용하여 분할시킨다¹¹.



11 단근치의 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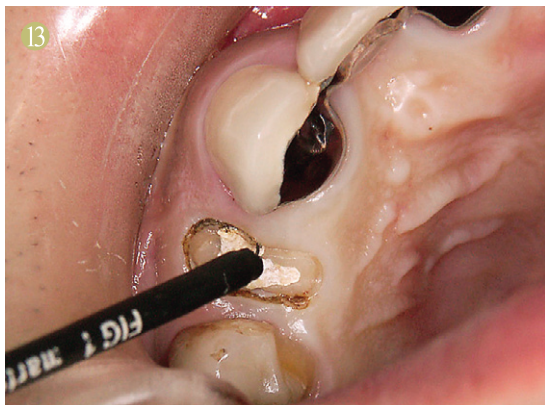
- 치근의 만곡, 비대, 유착이 있는 경우에는 단근치라도 분할한다.
- 버를 사용하여 치수강을 따라 치근단까지 분할한다.
- 유착 면적이 반감되어 쉽게 동요되고, 만곡의 undercut을 해소시킬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12



교과서적으로는 11과 같이 치근을 근심편, 원심편으로 분할하고 각각 근심우각부와 원심우각부에 발치기자를 삽입한다. 소구치에서는 치근이 편평한 경우가 있고, 근심편과 원심편으로 분할하는 것보다 12와 같이 협측편과 설측편으로 분할하는 것이 발치하기 쉬운 경우가 있다. 특히 상악에서는 17과 같이 협측근, 구개측근의 2근인 경우가 있으므로 이렇게 분할선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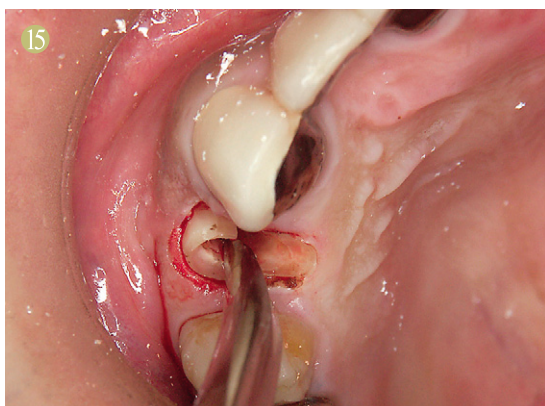
▶ 단근치라도 분할을 한다! ⑬~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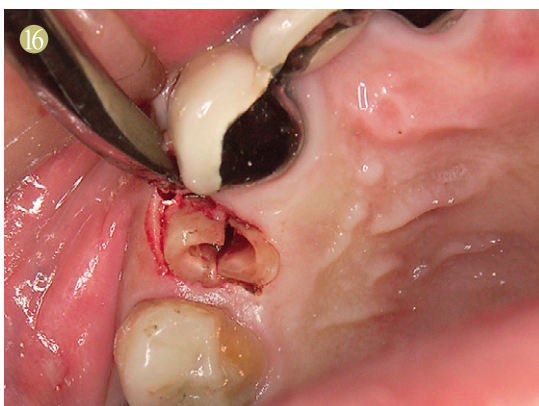
⑬ 피복된 치은을 전기메스로 절제하여 치근막강을 보이게 한다.



⑭ 치근의 형태를 보고 협측 및 구개측으로 분할한다.



⑮ 분할부에 발치기지를 삽입하고 회전시키면 분할편이 쉽게 동요된다.



⑯ 협측 우각부에 발치기지를 작용시켜 발치한다.



⑰ 참고. 사진과 같이 상악 소구치는 협측근, 구개근의 두 치근인 경우가 있으므로 치근을 분할할 때에는 협측편과 구개측편으로 분할시키는 것이 좋다.

Point 6

복근치는 분할하고 단근화

복근치의 잔근은 주저하지 말고 처음부터 분할한다 ⑱~㉓. 분할하는 요령은 헤미섹션, 트리섹션과 같다.

#17 잔근치의 분할

⑱ #17 잔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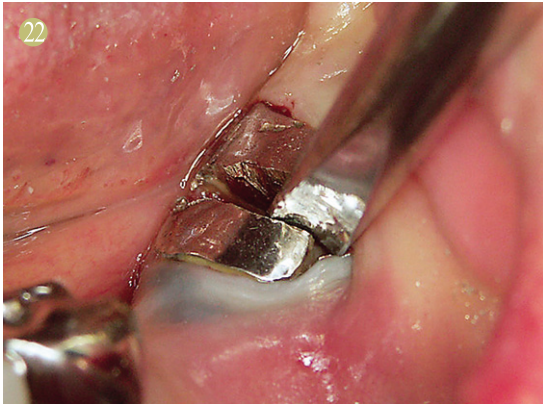
⑲ #17 잔근치의 분할선.

#37 잔근치의 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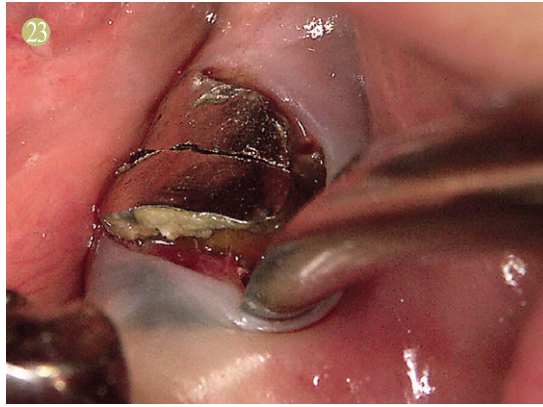
㉒ 근면판이 세팅된 #37 잔근치. 이대로 발치기자를 사용해도 발치는 곤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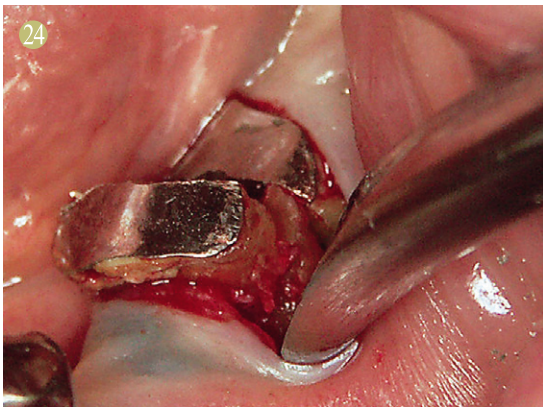
㉓ 버를 이용하여 분기부에서 분할한다.



22 분할부에 발치기자를 삽입하고 좌우로 회전하면 각각의 치근이 쉽게 동요된다.



23 근심협착우각부에 발치기자를 작용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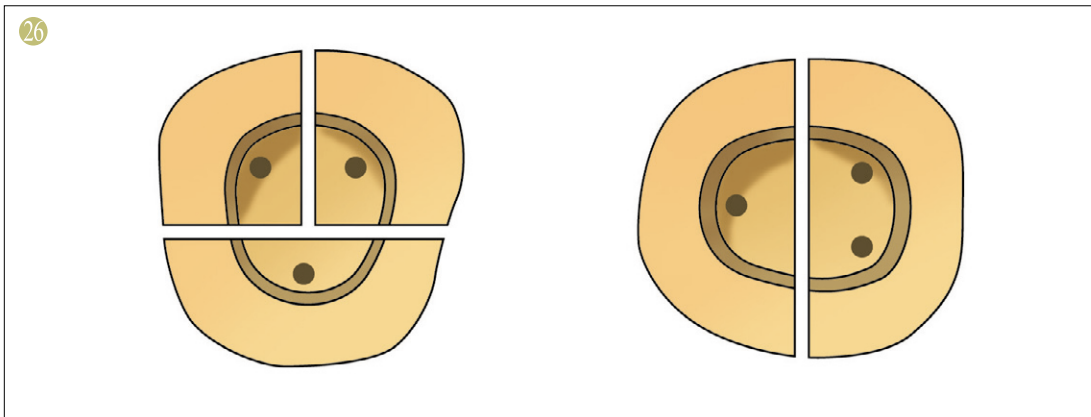


24 쉽게 탈구되어 정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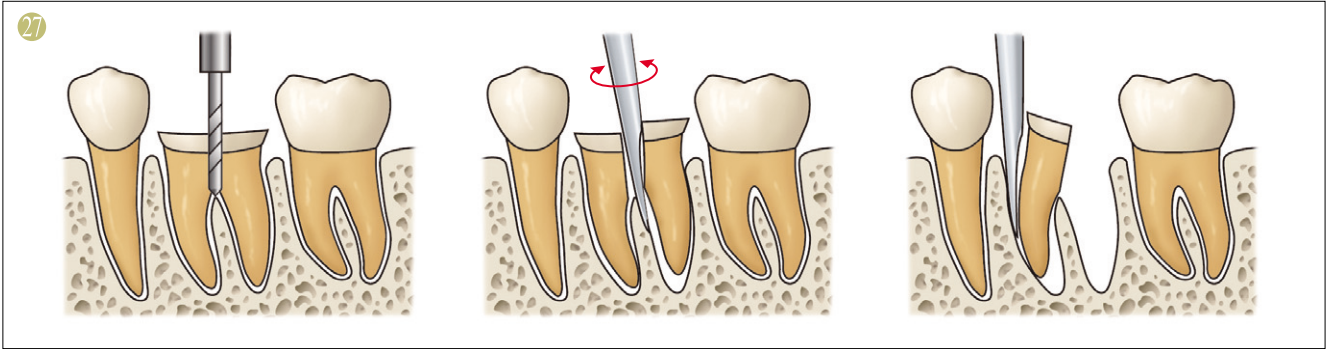


25 발거 치근의 비대가 있어 근분할을 하지 않고는 발치하기가 어렵다.

복근치의 분할



26 복근치의 잔근은 분할해서 발치기자를 사용한다.



27 분할 부분에 발치기자를 넣어 회전시키면 쉽게 동요시킬 수 있다. 근분기보다 하방에는 중격의 뼈밖에 없으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분할한다.

Point 7

발치기자를 이용하여 치은연하에 있는 잔근치를 발치하는 방법 2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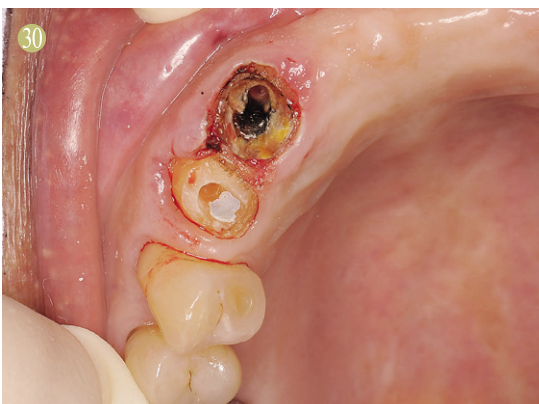
발치기자를 이용하여 치은연하에 있는 잔근치를 발치하는 방법은 ① 피복치은을 절제, ② 치근막강을 보이기, ③ 발치기자를 삽입하고 groove를 형성, ④ Groove에 발치기자를 삽입하여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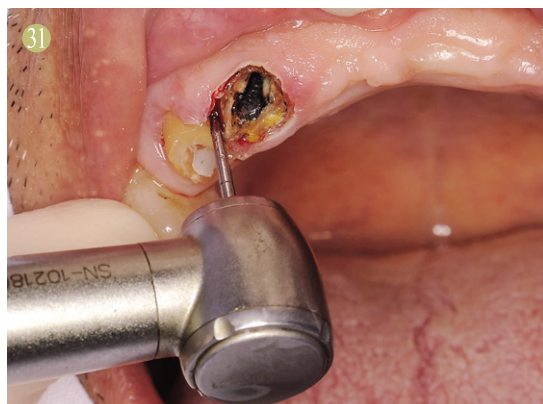
28 치은연하의 잔근치에서 치근막강이 불명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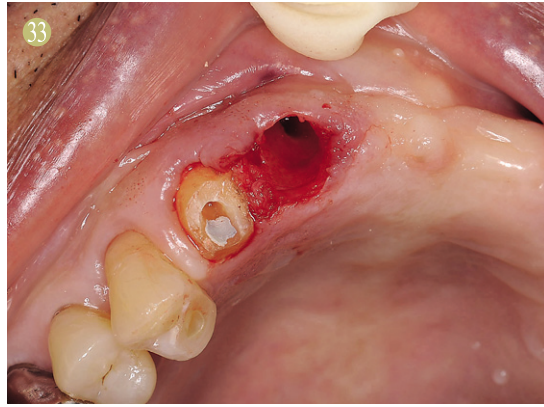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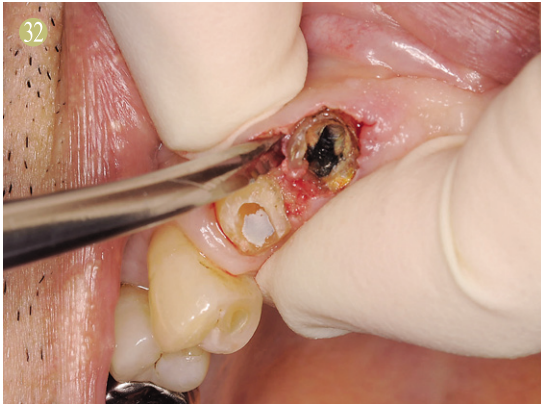
29 전기메스로 피복치은을 절제한다.



30 피복치은을 절제하여 치근막강을 노출시킨다.



31 발치기자를 삽입하는 공간을 버로 형성한다.



32 바로 형성시킨 groove에 확실하게 발치기자를 삽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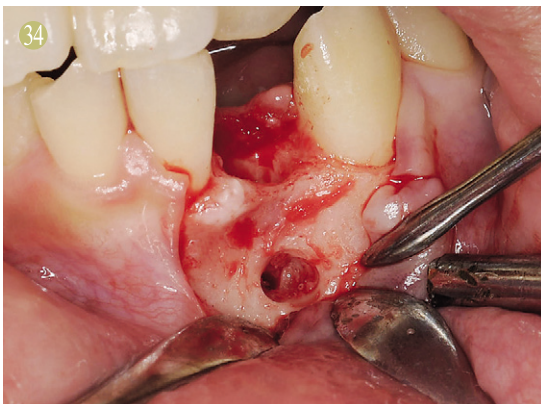
33 발치와. 치주조직의 손상이 적다.

Point 8

치근단부의 파절편이 잔존되었을 때에는 치근단절제술의 요령으로 제거하면 된다.

대구치 이외에는 협측 피질골이 그렇게 두껍지 않으므로, 치근단절제술의 요령으로 순측 및 협측의 치근단 해당부에 있는 피질골을 라운드 버로 열고 발치할 수도 있다 34 35. 하악 대구치는 협측 피질골이 두꺼우므로 무리이지만 상악 대구치의 협측근은 가능하다.

치근단부 잔근의 발치 ①



34 35 치근단부가 파절되어 남은 경우. 치근단부가 파절되어 남고 발치와에서의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치근단 절제술과 같은 요령으로 치근단부의 피질골을 라운드 버로 삭제하고 제거하면 된다.